

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드라마 '달콤한 나의 도시'

주인공에 배우 최강희

배우 최강희(사진)가 6월 초 SBS TV를 통해 방영 예정인 드라마 '달콤한 나의 도시'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

당초 김정은이 캐스팅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배우 사정에 따라 최강희로 교체됐다.

영화 '인어공주의 박흥식 감독이 연출하는 '달콤한 나의 도시'는 정이현의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서른 한 살 여성 은수의 일과 사랑을 그린다.

60분 분량의 16부작 미니시리즈 드라마로 10일째 첫 촬영을 하며, 지현우와 이선균이 최강희와 삼각 로맨스를 펼친다.

/연합뉴스



'80년대 이효리' 임수정 '원조 오빠' 김승진

추억의 가수 돌아왔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귀에 익은 멜로디에 옛 사랑의 추억을 이련하게 떠올리는가 하면 철없던 학창 시절이 스치며 입가에 미소가 머물기도 한다.
30~40대의 추억이 담긴 노래를 부른 주인공들이 가요계로 돌아오고 있다. 이들은 보다 활발한 활동으로 대중들에게 7080세대 가수들의 견제함을 보여주겠다며 의지를 보이고 있다.



'건아들' 멤버 곽종목씨도 컴백

17살에 '스잔'으로 데뷔해 1980년대 10대 소녀팬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원조 오빠' 김승진(40)은 20대 멤버들과 '미카엘 밴드'를 결성, 최근 2집을 발표했다.

김씨는 95년부터 컴백을 꾸준히 준비해왔었지만 사기를 당하는 등 약제가 겹치면서 활동을 중단해야 했다. 그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2003년에는 미카엘 밴드를 결성, 1집을 발표했고 2005년에는 솔로 앨범 '무사지심'을 냈지만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등 우려곡절이 많았다.

각고의 노력 끝에 나온 이번 2집은 '눈의 여왕' 'Love 4 u' '이별 그 후' 등 총 4곡이 수록된 미니앨범으로 타이틀 곡 '눈의 여왕'은 경쾌한 미디엄 템포 위에 슬픔이 묻어나는 가사와 멜로디가 접목된 곡으로 팬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임수정이 돌아왔다. '사이보그지만 괜찮아'에 출연했던 영화배우 임수정이 아니라 '80년대 이효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최고 인기를 누렸던 가수 임수

정(45)이다. 마흔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눈가에 깃든 잔잔한 주름만 늘었을 뿐 못 남학생들을 설레게 했던 수줍은 미소는 여전하다.

스무 살이던 1981년 CF로 데뷔했던 임씨는 유명 광고사와 제약회사 등 50여 편이 넘는 CF를 찍으며 순식간에 'CF 퀸'으로 등극했다.

이후 임씨는 가수로 데뷔했고 '연인들의 이야기'는 음반 공식 판매량만 30만 장이 넘어서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임씨는 "고생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갔으면 더 좋았을 것을 어린 나이에 벼락 스타가 되다 보니 연예계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그때의 후회는 다시 한 번 뛰어오르겠다는 각오로 변해 지난달 '도약'앨범을 발표했다. 이번 앨범에는 '꽃잎' '날 버리지마' 두 곡의 신곡과 '연인들의 이야기' '사슴 여인' 등이 수록됐다. 특히 '날 버리지마'는 드라마 '조강지처클럽'(SBS)에 삽입돼 현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7080세대의 그룹사운드로 큰 인기를 누렸던 '건아

들'의 멤버 곽종목(47)씨도 트로트 싱글 앨범 '반야고'(反野高)를 발표했다.

1980년 제3회 TBC 젊은이의 가요제에서 '젊은 미소'로 장려상을 수상하며 이름을 알리게 된 건아들은 '젊은 미소' '금연' '잊지는 않겠어요' 등의 노래로 큰 인기를 얻으며 7080세대 최고의 그룹사운드로 인정받았던 밴드다.

타이틀인 '반야고'는 한자로 되릴릴 반(反), 들야(野) 높을 고(高)를 써 높은 들을 되돌린다는 뜻으로 1980년대 그룹사운드로 최고 인기를 누렸던 건아들의 인기를 재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문기자 emlee@kwangju.co.kr

"맹순이 능가할 '뽀글이 아줌마' 기대하세요"

'내 생애 마지막 스캔들' 최진실

"돈 되는 일이면 뭐든지 다 해요. 가난에 찌든 아줌마죠. 이를 통해 '장밋빛 인생'의 맹순이를 능가할 인물을 만들고 싶습니다."

거칠 것 없이 당차게 말하는 그녀의 말투는 헤어스타일과 잘 어울렸다. 푸들머리라고 불리는 '뽀글뽀글 파마' 머리에 빨테 안경을 쓴 최진실이다.

그녀가 캐릭터 위에 코믹이라는 양념이 듬뿍 뿌려질 MBC TV '내 생애 마지막 스캔들'(극본 문희정, 연출 이태곤)의 흥선희 역으로 안방극장을 찾아 온다.

"맹순이를 떠나 보아야 하는데 아직도 제 밑바닥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장밋빛 인생'은 제가 배우로서 무척 힘들 때 제게 많은 것을 가져다 준 작품이에요. 하지만 이제 맹순이를 능가할 또 다른 인물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이번 드라마의 캐릭터인 흥선희였으면 좋겠어요."

흥선희는 가난에 시달리는 전업주부다. 그러다가 톱스타가 된 첫사랑 송재빈(정준호)과 우연히 재회한다. 나이와 과거를 속인 채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송재빈은 자신의 실체를

를 모두 알고 있는 흥선희가 부담스럽다.

"제 캐스팅이 결정된 후 상대 역으로 정준호 씨를 제작사에 추천했죠. 상대 역에 대한 설명을 듣는 순간 정준호 씨가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곧바로 정준호 씨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연기하고 싶다'고 제안했지요."

평소 친분이 두터운 이영자에게도 출연을 제안해 성사시켰다.

"출연해줘서 고맙다고 제법 큰돈을 거머쥘로 봤죠. 그런데 영자가 '받은 만큼 연기를 한다'는 반응을 보이기에 더 많은 돈을 봉투에 넣은 뒤 영자 얼굴에 던져 봤습니다. 다음날부터 연기가 훨씬 좋아지더라고요(웃음)." /연합뉴스



3 BOX OFFICE

영화 (단위:명)

순위	제목	전국관객	전국누계
1	추격자	62만7천749	281만8천333
2	밴디지 포인트	35만3천834	42만3천198
3	비보	33만3천292	40만1천543
4	점퍼	14만384	159만7천955
5	스피이더워크기의 비밀	10만3천920	61만2천268
6	데스노트 L:새로운 시작	5만6천674	33만9천242
7	랩보 4:라스트 블라드	5만2천159	6만9천930
8	사랑보다 황금	3만5천612	4만5천757
9	콩푸 덩크	3만2천295	4만641
10	워	2만8천231	3만3천974

(자료제공:영화진흥위원회)

TV (단위:%)

순위	제목	방송국	시청률
1	미우나 고우나	KBS1	40.4
2	이산	MBC	34.1
3	뉴하트	MBC	32.8
4	엄마가 뽀뽀	KBS2	24.0
5	무한도전	MBC	23.3
6	조강지처클럽	SBS	23.3
7	그래도 좋아	MBC	22.4
8	행복합니다	SBS	21.9
9	이현동 마님	MBC	21.2
10	KBS 뉴스9	KBS1	20.5

(자료제공:TNS리서치)

비디오

순위	제목	장르
1	식객	드라마
2	디 워	액션
3	바르게 살자	코미디
4	다이하드 4.0	액션
5	인베이션	스릴러
6	판타스틱 4:실버서퍼의 위협	액션
7	본 얼티메이텀	액션
8	리퍼두이	애니메이션
9	화려한 휴가	드라마
10	러시아워 3	액션

(자료제공:비디오코리아)

가요

순위	제목	가수
1	Love	브라운아이드걸스
2	미워도 사랑이니까	디바지
3	보고싶은 날엔	박지현
4	키싱 유	소녀시대
5	원 모어 타임	주요리
6	남자때문에	주
7	만약에	소녀시대 태연
8	마지막 인사	빅뱅
9	허우지	빅뱅
10	그것 사랑	맨데아리 & V.O.S & 일락

(자료제공:멜론)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수세기소라·세기보청기

1588-8400 / 02-722-0100

11215300-9999